◎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전민일보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45억원 지급

7505명 대상 농가당 지역상품권 60만원씩… 지역상권 활력 기대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영농규모 1천㎡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 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7일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전주일보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씩 지급한다

오늘부터7,505명 대상군산사랑상품권으로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 농가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총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 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새만금일보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추석 전까지 지급

농가 7505명 혜택
지역경제 활력 기대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 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순정일기자/sjl1323@hanmail.net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전북연합신문

2020/09/07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 농민 공익수당 지급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 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 cldn27@daum.net

새전북신문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씩 지급

군산시가 7일부터 추석전인 29일까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대상 농가는 7,505명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을 지역 농협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올해 첫 시행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 대상이다.

반면 제외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시는 이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임준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백용규 기자

새만금일보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보건소, 자기혈관 숫자 알기 온라인 캠페인

군산시가 비대면 교육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자기혈관숫자 알기 온라인 캠페인'을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기혈관숫자알기란 스스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체험형 프로그램 대신 비대면 교육 홍보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군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에서 '자기혈관숫자알기 온라인 캠페인'을 클릭한 뒤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기초상식 교육 후 퀴즈 풀기를 하면 된다.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순정일기자/sjl1323@hanmail.net

전북중앙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10면 지역

군산시, 농가당 60만원 농민 공익수당 지급

군산시가 농가당 60만원씩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오늘(7일)부터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가는 7,505명으로 총 45억원에 이르며,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및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다.

대상은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가운데 2년 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이면 된다.

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임준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 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전북타임스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9면 지역

군산시, 오늘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결정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오늘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全北日報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7면 자치시대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키로

군산시가 추석 전까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업인 7505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씩 총 45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익수당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영농 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된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삼남일보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6면 종합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역경제 활력'

농가 7505명 대상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 추석 전 지급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올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 부터 추석 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 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이수갑 기자

전주매일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7505명 대상 농가당 60만원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한경봉기자

전라매일

2020년 09월 07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기대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 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